

재외동포의 모국방문 경험과 초국가주의적 정체성 교섭: 전국체육대회 사례를 중심으로

장익영
한국체육대학교

Overseas Koreans' Return Visit and Transnational Identity Negotiation: A Case Study of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Ik-Young Cha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전국체육대회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모국방문 경험과 초국가주의적 정체성 교섭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 제 9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들 37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 중 사교, 정체성 유지 그리고 자아실현 추구가 높을수록, 전국체육대회에서 긍정적인 참가경험을 하며, 반대로 거주국에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나, 자신의 거주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한 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체성 유지를 위한 참가동기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경험이 높다. 둘째, 관광, 거주국에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자신의 거주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한 참가동기가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강하다. 반면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가 높을수록, 모국정체성이 강하다. 셋째, 재외동포들이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강하며, 반대로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적을수록 모국 정체성이 강하다.

주제어 : 재외동포,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 참가경험, 모국 정체성, 거주국 정체성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seas Koreans' return visit for th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Sports Festival(NSF) and transnational identity negotiatio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78 overseas Koreans who took part in the 96th NSF in 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motivation for socializing with others, maintaining a national identity and self-realization, the more the positive experience in the NSF. However, the higher the motivation for releasing stress and helping business, the more the negative experience they have in the NSF. Second, while the higher the motivation for releasing stress and helping business, the stronger the identity with settlement. However, the higher the motivation for maintaining a national identity, the stronger the identity with origin. Third, while the more the negative experience in the NSF, the stronger the identity with settlement. However, the less the negative experience in the NSF, the stronger the identity with origin.

Key Words : overseas Koreans, National Sports Festival, participation motivation in the NSF, experience in the NSF, identity with origin, identity with settlement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982)

Received 25 August 2016, Revised 26 Septem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Ik Young Cha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Email: ikyoungchang@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글로벌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1965년이래로 전 세계 이주인구는 7천 5백만 명에서 최근 2억 3천 2백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1]. 이와 같은 글로벌 이주현상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소위 재외동포(overseas Koreans)라 불리는 해외 이주 한국인의 숫자가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대한민국의 13.6%를 넘어서고 있다[2].

이주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정치적 억압에 의해 나타난 '강요에 의한 이주(forced migration)',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발생한 '경제 추구형 이주(economic seeking migration)'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문제들로부터 벗어나, 보다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려는 이주(lifestyle migration)'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현상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3].

이와 같은 글로벌 이주(Global Migration)는 '받는 국가(receiving country)' 뿐만 아니라 이주를 '보내는 국가(sending country)'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제도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4,5], 이로 인해 사회과학의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글로벌 이주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이주를 결정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나[6,7], 이주 후 정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정체성 교섭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져 왔다[8,9]. 다시 말하면, Baldassar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주는 새로운 나라로 정착하면 끝나는 과정으로서 인식되어져왔기 때문에, 이주 후 발생하는 모국방문 경험과 이주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주연구의 일부분으로 개념화 되지 못해왔다"[10].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발달한 교통과 통신은 이주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국과 정기적인 교류를 쉽게 만들어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새롭게 정체성을 교섭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11].

이와 같은 글로벌현상은 스포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12,13]. 특히, Hoberman에 따르면, 글로벌현상 속에서 스포츠는 문화적 동질화(homogenization)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급속도로 팽창하

는 글로벌 현상과는 반대로 국가 단위에서 민족주의를(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14,15].

특히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 일제식민지 저항을 통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해방이후 '국민의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더욱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미니 올림픽'이라 불리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규모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관문으로서 이용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의 핵심이 되었을 때, 재외동포로 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위해 일본과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초청하면서 재외동포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16]. 특히 1990년 이후부터 다양한 나라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에게 참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전국체육대회는 명실상부 가장 많은 재외동포들이 참가하는 국가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2005년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시작한 이후, 재외동포의 전국체전 참가는 2015년 17개국 약 1,30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 참가자들에게 경기가 진행되는 1주일동안 일인당 참가비 약 3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함은 물론 항공권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고국방문을 통해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3]. 더욱이 Chang 등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모국방문 동기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모국방문 동기는 그들의 정체성 교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

하지만 스포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작금의 시기에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스포츠의 역할을 대한 연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단일행사로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큰 행사인 전국체육대회를 대상으로 어떻게 전국체육대회 참가가 정체성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 세계 17개 국가들로부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를 위해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방문 동기와 전국체전 참가경험이 어떻게 그들이 초국가주의적 정체성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동기는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재외동포의 전국체전 참가동기는 그들의 초국가주의적 정체성 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은 그들의 초국가주의적 정체성 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국체육대회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들의 모국방문 참가동기 및 경험이 초국가주의적 정체성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5년 강원도 일대에서 개최된 제 9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1,112명의 재외동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research participant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Female	156	41.3
	Male	222	58.7
Participation type	Player	200	52.9
	Staff	96	25.4
	Player & staff	32	8.5
	Cheer team.	50	13.2
Age	under 29	54	14.3
	30-39	40	10.6
	40-49	102	27.0
	50-59	110	29.1
	over 60	72	19.0
Current country of residence	Argentina	5 (17)	1.3
	Australia	12 (72)	3.2
	Brasil	5 (6)	1.3
	China	58 (126)	15.3
	England	8 (36)	2.1
	Guam	28 (85)	7.4
	Germany	14 (14)	3.7
	Hong Kong	36 (49)	9.5
	Indonesia	16 (125)	4.2
	Japan	18 (121)	4.8
	New Zealand	44 (96)	11.6
	Philippine	48 (100)	12.7
	Saipan	22 (86)	5.8
United States	64 (113)	16.9	

* The number of () is a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from each country in the NSF

먼저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 6명이 개막식이 개최된 강릉종합운동장에 직접 방문하여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서 모인 17개국 재외동포선수단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 (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14개국 408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설문 내용에 무응답이나 이중 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 30명의 자료를 제외한 378명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은 이 연구를 위해서 표집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2.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5문항,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 7문항,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 7문항, 정체성 교섭 4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와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규명된 모국 참가동기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17,18]. 구체적으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는 관광, 친·인척 방문, 거주국에서의 스트레스 해소, 다른 재외동포들과의 사교, 모국 정체성, 성취감 통한 자아실현, 거주국 사업도움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은 Gomez와 개발하고 백선아가 한국어로 번안한 외국인 노동자의 지각된 경험을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7,18].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교섭에 대한 설문지는 Gomez와 Taylor와 Doherty가 사용한 하위문화정체성 척도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자신의 문화 또는 거주국의 문화와의 일체감을 가지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17,19]. 총 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2.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이 연구의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한 교수 1인과 박사 5인의 토의를 통하여 설문지 내용을 검토한 후 내용타당도와 적합

성 여부를 논의하였고 논의된 사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은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식으로는 주성분분석을 그리고 요인회전방법으로 직각 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추출 기준은 초기 고유값 1.0이상으로 하였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xperiences in the NSF

Question	Positive experience	Negative experience
item 1(welcome)	.852	-.158
item 3(kindness)	.847	.071
item 6(recognition)	.823	.079
item 4(fairness)	.716	-.071
item 2(ignorance)	-.217	.863
item 5(disparagement)	-.037	.855
item 7(dislike)	.142	.645
eigenvalue	2.746	1.890
variance(%)	39.233	27.006
accumulation(%)	39.233	66.239
Cronbach'a	.828	.684
KMO=.712 X ² =884.578 Sig=.000		

먼저, <Table 2>는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참가경험에 대한 7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참가경험과 부정적 참가경험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먼저 긍정적 참가경험의 요인부하량은 .852-.716, 부정적 참가경험의 요인부하량은 .863-.645로 나타나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참가경험에 대한 신뢰도 값은 각각 .828과 .684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설문지로 나타났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ransnational identity negotiation

Question	identity with settlement	identity with origin
item 4(identity with settlement1)	.925	-.015
item 3(identity with settlement2)	.897	-.182
item 1(identity with origin1)	-.058	.867
item 2(identity with origin2)	-.119	.849
eigenvalue	1.930	1.253
variance(%)	48.245	31.313
accumulation(%)	48.245	79.558
Cronbach'a	.809	.658
KMO=.599 X ² =362.904 Sig=.000		

다음으로 <Table 3>은 정체성 교섭에 대한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된 정체성 교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거주국정체성과 모국정체성으로 구성된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먼저 거주국정체성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925-.897로 나타났으며, 모국정체성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867-.849로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국정체성과 모국정체성에 대한 신뢰도 값은 .809-.658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설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조사절차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보조연구자들이 96회 전국체육대회의 개막식이 개최된 강릉종합운동장에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 6명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 목적과 기입 방법을 설명해준 뒤, 해외 17개국에서 참가한 해외동포들이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2.5 자료처리방법

연구자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자들에 의해서 회수된 설문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 즉, 이중기입 또는 무기입 등으로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개별 입력(Coding)시키고, SPSS/PC+ 18.0 Version과 Amos/PC+ 18.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3. 결과

3.1 변인간의 상관관계

<Table 4>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해외동포의 참가동기, 참가경험 그리고 초국가적 정체성 교섭의 관계에 대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r)는 -.205에서 .441이었으며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값이 .85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었으며, 또한 모든 변수에서 상관계수 값이 다중공선성의 기준치인 .8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20].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Sightseeing	1										
2. Visiting family	.441**	1									
3. Releasing stress	.374**	.236**	1								
4. Socializing with others	.241**	.248**	.198**	1							
5. Maintaining identity	.226**	.134*	.115*	.431**	1						
6. Self-realization	-.044	-.139**	.020	.099	.076	1					
7. Helping business	.334**	.359**	.274**	.191**	.096	.153**	1				
8. Positive experience	.141**	.108*	.162**	.405**	.416**	.174**	.149**	1			
9. Negative experience	.242**	.219**	.338**	-.013	-.068	-.029	.427**	.201**	1		
10. Identity with settlement	.214**	.116*	-.006	.013	.018	.006	.280**	-.063	.162**	1	
11. Identity with origin	-.045	-.056	-.039	.052	.201**	.027	-.064	.047	-.127*	-.205**	1

**p<.01

3.2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와 초국가주의적 정체성 교섭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

이 연구는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와 초국가적 정체성 교섭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3.2.1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와 참가경험의 관계

먼저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와 참가경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in the NSF and experience in the NSF

	Positive experience		Negative experience	
	β	t	β	t
Sightseeing	-.004	-.070	.037	.691
Visiting family	.019	.354	.019	.358
Releasing stress	.059	1.171	.261	5.267***
Socializing with others	.243	4.630***	-.099	-1.922
Maintaining identity	.306	5.985***	-.115	-2.289*
Self-realization	.124	2.598**	-.068	-1.452
Helping business	.023	.441	.394	7.695***
R	.517		.539	
R ²	.267		.291	

*p<.05 **p<.01 ***p<.00

전국체육대회의 참가동기 중 다른 나라에서 온 해외 동포와의 사교(β=.243), 정체성 유지(β=.306) 그리고 운동선수로서의 자아실현(β=.124)을 위해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수록,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을 높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약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높은 재외동포들의 경우, 참가동기가 거주국에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참가동기가 높은 경우(β=.261),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참가하는 동기가 낮은 경우(β=-.115) 그리고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한 동기가 높은 경우(β=.394)이다. 이와 같은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는 전국체육대회의 부정적 참가경험의 총 변량 중 약 2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와 초국가주의적 정체성교섭의 관계

먼저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와 초국가적 정체성 교섭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in the NSF and identity negotiation

	Identity with settlement		Identity with origin	
	β	t	β	t
Sightseeing	.217	3.609***	-.057	-.918
Visiting family	-.021	-.360	-.039	-.641
Releasing stress	.156	2.820**	-.016	-.274
Socializing with others	-.052	-.902	-.008	-.129
Maintaining identity	.005	.087	.219	3.757***
Self-realization	-.022	-.431	.007	.132
Helping business	.262	4.599***	-.041	-.695
R	.347		.222	
R ²	.120		.049	

p<.01 *p<.00

전국체육대회의 참가동기 중 관광을 위한 참가동기가 높거나($\beta=.217$), 거주국에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beta=.156$)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사업을 위한 동기가 높은 경우($\beta=.262$),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 변량의 약 1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체성유지를 위한 동기가 높은 재외동포의 경우($\beta=.219$), 모국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약 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과 초국가주의적 정체성교섭의 관계

먼저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과 초국가적 정체성 교섭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와 같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between experience in the NSF and identity negotiation

	Identity with settlement		Identity with origin	
	β	t	β	t
Positive experience	-.099	-1.921	.077	1.475
Negative experience	.182	3.513***	-.143	-2.728**
R	.189		.147	
R ²	.036		.022	

***p<.01 **p<.00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beta=.182$)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약 4%를 설명하고 있었다. 반대로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적게 할수록 강한 모국정체성($\beta=-.143$)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변량의 약 2%만을 설명하고 있었다.

4. 논의

이 연구는 전국체육대회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모국방문 경험과 초국가적 정체성 교섭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참가동기와 참가경험이 어떻게 초국가적 정체성을 교섭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구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중심으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와 참가경험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 중 다른 나라에서 참가한 재외동포들과의 사교나 자신의 모국 정체성 유지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메달획득을 통한 자아실현 추구가 높을수록, 전국체육대회에서 긍정적인 참가경험을 하게 된다. 반대로 현재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얻게 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한 참가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모국 정체성 유지를 위한 참가동기가 낮을수록,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참가경험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및 개최지인 강원도가 재외동포들을 전국체육대회에 초대하는 목적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는 재외동포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고국의 향수를 느끼고 긍정적인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전국체육대회를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행사내용은 재외동포들의 참가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를 긍정적으로 경험했다고 인식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21].

둘째,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 중 관광이 목적이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얻은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현재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기가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Fairley와 Gammon 그리고 Joseph의 연구결과 상대적으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22,23]. 구체적으로 스포츠 활동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한 스포츠관광의 목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 재외동포들은 강한 모국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관광은 자신의 모국에 대한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공헌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을 스포츠와 연결된 관광으로 묻지 않고 단순히 관광으로 제약하였기 때문에 스포츠관광과 일반 관광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질문하게 된다면 보다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4,25,26,27,28].

셋째, 재외동포들은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강하며, 반대로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적을수록 모국 정체성이 강하다. 요약해보면, 전국체육대회 참가경험 중 부정적인 경험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교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 및 전국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는 지방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재외동포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요소 중 부정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전국체육대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모국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초청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보다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모국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재외동포의 모국 정체성 교섭이라는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다 쉽게 얻게 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와 경험은 실제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Chang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그들의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다[3].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회를 운영한다면 이는 재외동포들이 자신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재외동포의 경쟁력이 모국의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국가 간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 가교 역할은 물론 국내적으로 민족의 화합을 강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재외동포 행사 중에 하나인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와 초국가적 정체성 교섭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었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 중 다른 나라에서 참가한 재외동포들과의 사교나 자신의 모국 정체성 유지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메달획득을 통한 자아실현 추구가 높을수록, 전국체육대회에서 긍정적인 참가경험을 한다. 반대로 현재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얻게 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한 참가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모국 정체성 유지를 위한 참가동기가 낮을수록,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참가경험은 부정적이다.

둘째, 재외동포의 전국체육대회 참가동기 중 관광이 목적이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얻은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현재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기가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이 강하며, 정체성 유지를 위한 참가동기가 높으면 모국 정체성이 강하다.

셋째, 재외동포들이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강하며, 반대로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적을수록 모국 정체성이 강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추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다양한 이주형태를 고려하기 보다는 현재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모든 재외동포들의 이주 이유 및 거주하는 나라에서의 신분 역시 다 같지 않다. 이러한 거주 이유와 신분은 전국체육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정체성 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재외동포들이 어떻게 전국체육대회 안에서 정체성을 교섭하는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5A07041982).

REFERENCES

- [1] P. Kivisto, & T. Faist, "Beyond a bord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ontemporary immigration." CA: Pine Forge Press, 2010.
-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 summary of overseas Kore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5.
- [3] I. Y. Chang, M. Sam, & S. Jackson, "Transnationalism, return visits and identity negotiation: South Korean-New Zealanders and Korean National Sport Festival."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DOI:10.1177/1012690215589723, 2015.
- [4] I. Y. Chang,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eisure Sports as a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Lifestyle Migration Decision Making: A Case of South Korean Immigrants in New Zealan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28, No.1, pp:89-107, 2015.
- [5] A. Babacan, S. Singh, "Migration, belonging and the nation stat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 [6] S. Castles, & M. J. Millers,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Palgrave-Macmillan and Guilford Books, 2003.
- [7] D. S. Massey, J. Arango, G. Hugo, A. Kouaouci, A. Pellegrino, & J. E. Taylor,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19, No.3, pp.431-466, 1993.
- [8] R. Alba, & V. Nee,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31, No.4, pp.826-874, 1997.
- [9] M. M. Gordon, "Assimilation and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10] L. Baldassar, "Visits home: Migration experiences between Italy and Australia."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01.
- [11] T. Faist, M. Fauser, & E. Reisenauer, "Transnational mig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3.
- [12] R. Giulianotti, & R. Robertson, "Globalization and sport." Oxford: Blackwell, 2007.
- [13] J. Maguire, "Globalization, sport and national identity." *Sport in Society*, Vol.14, No.7-8, pp.978-993, 2011.
- [14] J. Hoberman, "Sport and political ideolog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4.
- [15] H. S. Yi, "Competition between nationalism and transnationalism in the discourse on a naturalized sport celebrity, Victore Ah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28, No.1, pp.153-182, 2015.
- [16] M.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Seoul: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10.
- [17] E. Gómez, "The ethnicity and public recreation participation (EPRP) model: An assessment of unidimensional and overall fit." *Leisure Sciences*, Vol.28, pp.245-265, 2006.
- [18] S. A. Baik,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lturation and sport participa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2.
- [19] T. Taylor, & A. Doherty, "Adolescent sport, recreation and physical education: Experiences of recent arrivals to Canada." *Sport, Education and Society*, Vol.10, No.2, pp.211-238, 2005.
- [20]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2005.
- [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8/20000000AKR20151018024500062.HTML> [online] [cited 2016.8.7.]
- [22] S. Fairley, & S. Gammon, "Something lived,

- something learned: Nostalgia's expanding role in sport tourism." *Sport in Society*, Vol.8, No.2, pp.182-197, 2005.
- [23] J. Joseph, "Culture, community, consciousness: The Caribbean sporting diaspora."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49, No.6, pp.669-687, 2014.
- [24] Deok-Man Kim, "Revitalization small businesses of the overseas exchange through the convergence of private network (Focusing on Laos in the Indochina Peninsul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2, pp. 31-36, 2015.
- [25] I-O. Jeon, & M-S. Kang, "value of the property on the impact of the Perceived value of accommodation on tourism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0, pp.79-94, 2013.
- [26] H-Y Jang, H-J. Park, & S-H. Choe, "Cultural Tourism Product Development Research of Muju Taekwondo Institu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2, pp.351-357, 2016.
- [27] Young-Ae Jung,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1, pp. 15-20, 2011.
- [28] S-Y. Han, S-J. Park, & H-J. Lee, "The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visitor satisfaction, it's antecedents and the modification of images of Korea perceived by Chinese and Russian Tourists after their visits to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 pp.115-125, 2014.

장 익 영(Chang, Ik Young)



- 2000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 (체육학사)
- 2009년 11월 : Lakehead University 체육학과 (이학석사)
- 2014년 5월 : University of Otago 체육학과 (철학박사)
- 2014년 5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 이주, 정체성
- E-Mail : ikyoungchang@gmail.com